11면에서 계속

갔다. 왜왕이 묻기를 ‘ 어찌하여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 ’ 하니 박제상이 ‘ 신臣은 계림鷄林(신라)의 신하이니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할 뿐이오 ’ 하고 대답하였다. 왜왕은 그동안 접해보면서 박제상의 지혜와 인품을 아끼게 되어 어떻게든 회유해 자기의 신하로 삼고자 하였으나 듣지 않자 노하여 꾸짖었다. ‘ 계림의 신하란 말을 또 했다가는 반드시 오형五刑을 갖추어 가하겠다 ’ 하였으나 박제상이 굽히지 않자 그 발바닥의 껍질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낸 갈밭을 총총걸음으로 걷게 하라 명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다시 묻기를 ‘ 어느 나라의 신하냐 ’ 하니 대답은 ‘ 계림의 신하요 였다. 다시 불에 달군 철판에 세우고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으니 또 계림의 신하라 하므로 왜왕이 그 굴하지 않을 것을 알고 불태워 죽이게 하였다.

일설에는 박제상이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고 하여 유형流刑에 처해지고 또 화형火刑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 아내 솔삼낭率三娘은 치술령鵄述嶺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자 망곡望哭을 하다 죽었다. 이에 거기에 있던 돌을 망부석望夫石이라 하게 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 사연을 노래로 지어 치술령곡鵄述嶺曲이 생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눌지왕은 애통하며 박제상에게 대아찬大阿飡을 추증하고 도솔낭은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추봉하였다. 한편 미사흔은 왜국에 가 있던 신라인 강구려의 도움으로 무사히 환국했는데, 미리 강구려를 시켜 자기의 환국을 알리게 하니 눌지왕이 백관에게 명해 미사흔을 마중케 했다. 왕은 둘째아우 복호와 함께 서라벌의 남쪽 교외까지 나가 몸소 미사흔을 맞이하고 궁궐로 돌아와서는 잔치를 베풀고 대사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 주었다. 미사흔은 서불한舒弗邯에 증직되고 또 박제상의 둘째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미사흔의 딸은 다시 그 조카인 자비왕慈悲王의 비妃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난 아들이 소지왕炤知王이 되었다. 눌지왕과 미사흔은 형제간에 우애가 아주 좋았는데 이를 찬양한 노래로 우식곡憂息曲이 있었다. 그러나 치술령곡이나 우식곡이나 다 전하지 않는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눌지초립념천륜訥祗初立念天倫 : 눌지왕 처음 즉위해 천륜를 생각하여
변사방구득차인辯士旁求得此人 : 언변의 선비 널리 구해 이 사람을 얻었네
질제귀래전이비質弟歸來全二臂 : 볼모된 아우 데려와 양팔을 온전케 하니
신라천재일충신新羅千載一忠臣 : 신라 천년에 한 사람 충신일레라
권흔환국체부상勸欣還國滯扶桑 : 미사흔을 달래 환국시키고 해돋는 나라에 남아
신피음형최가상身被淫刑最可傷 : 몸에 혹형을 받아 상창이 만신인데
곡망동명처우사哭望東溟妻又死 : 동녘바다 바라보며 호곡하던 아내 또한 죽으니
지금충렬사증광只今忠烈史增光 : 충과 열이 오늘에 이르도록 사책에 빛을 더하네.

201. 찬덕촉괴讚德觸槐

신라의 진평왕眞平王 32년(610)에 백제가 크게 발병發兵을 하여 신라의 가잠성椵岑城을 공격하니 왕이 상주上州와 하주下州 및 신주新州의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 구원케 하였으나 싸워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에 가잠의 현령縣令 찬덕讚德이 보고 분개하여 사졸에게 말하였다.

“ 3주의 군사와 장수가 적이 강한 것을 보고는 진격을 아니하고 성읍城邑을 구하지 않으니 이는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의리가 아닌 것과 더불어 사는 것은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

이에 크게 격앙하면서 또한 싸우고 또한 지켰으나 성안의 양식이 다하고 물이 마르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그는 분려奮勵하여 힘껏 싸우며 지칠 줄을 몰랐는데 이윽고는 사람은 피폐하고 성은 깨어지기에 이르자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르짖어 ‘ 우리 임금이 이 한 성을 내게 맡겼는데 이를 능히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패하니 원컨대 죽어서 큰 여귀厲鬼가 되어 백제인을 다 섬멸하고 이 성을 되찾게 해주십사 ’ 하고는 두 팔을 걷어 올려 눈을 부릅뜨고 홰나무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 이에 성이 함락되고 군사는 모두 항복하였다.

찬덕이 죽은 것은 진평왕 34년, 서기 612년이다. 찬덕은 신라 왕경王京 모량부牟梁部 사람으로 용맹하며 영특한 지략이 있어 진평왕 32년에 발탁되어 가잠성의 현령이 되었는데 이듬해 10월에 백제 무왕武王이 대군을 동원해 한강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잠성을 공격하고 포위하여 10일 동안 공방전을 벌였다. 진평왕은 장수에게 명하여 상주上州(지금의 상주尙州)와 하주下州(창녕昌寧)및 신주新州(광주廣州)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 구하게 하였으나 백제군과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에 찬덕이 비분강개하여 ‘ 3주의 군사가 적이 강한 것을 보고 성이 위태로운데도 구원하지 않고 물러가니 이는 의가 없는 것이다. 의가 없이 사는 것은 의가 있이 죽는 것만 못하다 ’ 하고 발분하여 공방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다가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시체를 먹고 오줌을 마시며 성을 사수했다. 해가 바뀌어 진평왕 34년, 612년 정월에 무기가 떨어지고 힘이 다하자 하늘을 우러러 ‘ 우리 임금이 내개 한 성을 맡겼는데 능히 보전하지 못하고 적에게 패하게 되었다. 죽어서라도 큰 악귀가 되어 백제인을 다 물어죽이고 이 성을 수복하라 ’ 하고는 달려가 느티나무에 몸을 부딪쳐 자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성은 함락되고 군사는 다 항복하였다. 그 아들 해론奚論 또한 충신이었는데 아버지 찬덕의 훈공으로 대내마大奈麻가 되어 금산당주金山幢主가 되고 한산주도독漢山州都督 변품邊品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가잠성을 공격해 수복코자 하였다. 이에 백제군도 대군으로 응수하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해론이 여러 장수에게 ‘ 앞서 나의 아비가 여기에서 전사하였는데 자식인 나도 지금 이 성에서 백제와 싸우게 되었으니 이는 내가 죽는 날이다 ’ 하고는 칼을 높이 들고 돌진하여 적군 여럿을 죽이고 전사하였다. 이로써 부자가 한 성에서 연달아 전사하였는데 이를 듣고 진평왕이 눈물을 흘리며 예로써 장사케 하고 장가長歌를 지어 이들을 조위弔慰하였다. 제목 찬덕촉괴讚德觸槐는 찬덕이 홰나무에 부딪쳤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원병인퇴적병강援兵引退敵兵强 : 구원병은 이끌려 물러나고 적병은 강한데
독수고성분격앙獨守孤城奮激昻 : 홀로 외로운 성 지키며 분연히 격앙했네
양진력궁유사전糧盡力窮猶死戰 : 군량 떨어지고 힘이 다해도 오히려 죽기로 싸우니
일생충의격원창一生忠義格圓蒼 : 일생의 충의가 하늘에 사무쳤네
인피성파앙천호人疲城破仰天呼 : 사람은 지치고 성은 깨어지니 하늘 우러러 부르짖으며
장지임위경불투壯志臨危竟不偸 : 굳센 뜻 위태로움에도 끝내 변치 않고
진목촉괴경일사瞋目觸槐輕一死 : 눈을 부릅떠 홰나무 드리받으며 한번 죽음 가벼이하니
고풍늠름해동우高風凜凜海東隅 : 높은 풍모 늠름하여 해동의 한쪽을 빛내네

202. 눌최진절訥催盡節

신라 진평왕眞平王 45년(623)에 백제군이 속함速含、앵잠櫻岑、기잠岐岑、봉잠烽岑、기현旗懸、혈책穴柵 등의 6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니 왕이 상주上州와 하주下州、귀당貴幢、법당法幢、서당誓幢의 5군에게 명하여 가서 구원케 하였다. 구원병이 이르러 보니 백제군의 날카로운 봉예鋒銳를 당할 수가 없는지라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나아가지를 않았다. 백제의 침공은 더욱 급하므로 속함과 기잠、혈책은 혹은 섬멸되고 혹은 항복하였다.

눌최訥催는 봉잠과 앵잠、기현을 군사로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5군이 구원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졸에게 말하기를 ‘ 지금 외로운 성에 원군은 없어 날로 위태로워짐이 절벽끝에 다가감과 같다. 이는 진실로 지사志士가 절개를 다할 가을인데 너희는 장차 어찌할 테냐 ’ 하니 사졸이 눈물을 뿌리면서 ‘ 감히 죽음을 애석히 아니하고 오직 명을 좇겠습니다 ’ 하였다.

이윽고 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러 군사가 수없이 죽는데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하였다. 눌최의 가노家奴가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는데 눌최의 앞에 있으면서 화살을 쏘는대로 빗나가는 게 없으니 적이 두려워하여 앞으로 다가오지를 못했다. 이때 적 하나가 배후에서 눌최를 치니 그 종이 적을 반격해 싸우다가 같이 죽었다. 왕이 듣고는 비통하여 눌최에게 급찬級飡의 직을 내렸다.

눌최가 죽은 것은 진평왕 46년, 624년이다. 그는 왕경王京 서라벌의 사량부沙梁部 사람으로 대내마大奈麻 도비都非의 아들이다. 624년 10월 백제의 대군이 신라의 변경 6성을 포위 공격하자 진평왕은 다섯 고을의 5군으로 구원케 했으나 5군의 장수들은 백제군의 예봉이 두려워 맞싸우지 못하고 다만 노진성奴珍城 등 6성을 쌓고는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6성중 3성을 굳게 지키던 눌최가 결사전을 폈으나 세궁력진勢窮力盡으로 패사하게 되었다. 이때 눌최에게 힘센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이 혹자가 소인小人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해로운 일이 많다며 그 종을 멀리하라 충고했다. 그러나 눌최는 듣지 않고 그 종을 가까이 데리고 다녔고, 그 종이 눌최를 보호하며 싸워 감히 적이 접근치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적이 뒤에서 내려치는 도끼에 눌최가 맞아 전사할 때 그 종도 이를 막아 싸우다 함께 죽었다.

제목 눌최진절訥催盡節은 눌최가 절의를 다했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접전고성일익위接戰孤城日益危 : 외로운 성에서 접전함에 형세 날로 위태로운데
오군하사두류위五軍何事逗留爲 : 5군은 어인 일로 머뭇거리기만 하는가
공위유급원병절攻圍愈急援兵絶 : 에워싸고 치는 것 더욱 급하나 원병은 끊어지니
정시충신진절시正是忠臣盡節時 : 정녕 충신이 절의를 다할 때로라
등비강개서연생登埤慷慨誓捐生 : 성가퀴에 올라 강개히 목숨 버릴 서약하며
휘루인개감지정揮淚人皆感至情 : 눈물 흩뿌리니 모든 사람 지극한 뜻에 감동했네
종차일성동사적從此一城同死賊 : 이로부터 한 성이 한가지로 적에게 죽으니
증관수훌장충성贈官垂恤奬忠誠 : 관작을 추증하고 위로하여 충성을 장려했네

203. 죽죽부조竹竹不凋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0년(641)에 백제의 장군 윤충允忠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대야성大耶城(합천)을 뽑고는 남녀 1천인을 노획하였다. 처음에 이곳의 도독都督 품석品釋이 그 막객幕客 금일黔日의 아내를 빼앗으니 금일이 원을 품고 있다가 이에 이르러 내응內應이 되어서는 곡식창고에 불을 질렀다. 성중에서는 지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품석을 보좌하던 아찬阿飡이 품석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니 죽죽竹竹이 이를 말렸으나 품석이 죽죽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문을 여니 사졸이 먼저 나가자 백제군이 복병을 발하여 모두 죽였다. 품석이 뒤따라 항복하러 나가려다가는 먼저 나간 사졸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에 죽죽이 남은 사졸을 수습해서는 성문을 닫고 스스로 항거하였다. 이에 용석龍石이 죽죽에게 ‘ 지금 병세兵勢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온전치 못할 것인즉 항복해 살아서 후일의 효험을 도모함만 같지 못하다 ’ 하니 죽죽이 대답하기를 ‘ 내 아비가 내 이름을 죽죽이라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세한歲寒에 조락凋落하지 말라 하는 뜻이었으니 부러지기는 해도 굽힐 수는 없거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기를 구할 것인가 ’ 하고 힘써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용석과 같이 죽었다. 임금이 듣고 애상哀傷하여 죽죽에게는 급찬級飡을, 용석에게는 대내마大奈麻를 추증하였다.

품석은 성이 김金씨이고 뒤에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되는 김춘추金春秋의 사위이다. 무장武將으로서 이찬伊飡일 때에 대야성의 도독이 되었는데 그곳의 사지舍知로 있는 금일의 미인 아내를 빼앗았다. 선덕여왕 11년, 642년에 백제군이 맹공을 하자 원한을 품은 금일이 적과 내통하여 성이 함락되기에